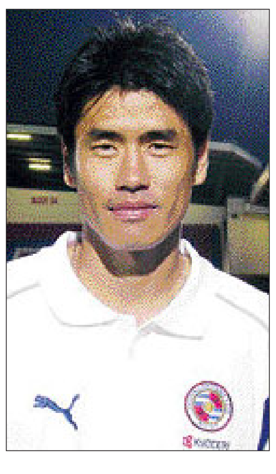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설기현 레딩 2호골

FC 밀월과 평가전 결승골 1-0 승리



한국인 3호 프리미어리거 설기현(27·레딩·사진)이 이적 후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에서 뛰게 된 설기현은 2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뉴덴에서 열린 잉글랜드 리그1(3부 리그) 소속 FC밀월과 원정 평가전에 선발 출전, 전반 40분 결승골을 성공시켜 1-0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20일 러시덴 다이아몬즈전에서 레딩 이적 데뷔골을 터트렸던 설기현은 2경기만에 2호 골을 추가하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레딩 이적 후 출전한 4차례 평가전에서 2골2도움을 올리며 일단 주전 확보에 청신호를 켰다.

이날 전반 45분만 소화한 설기현은 레로이 리타와 모처럼 최전방 투톱으로 나서 호흡을 맞췄다.

경기 초반부터 좌우를 오가며 상대 수비진을 흔든 설기현은 전반 15분께 왼쪽 미드필드 진영에서 쇄도하며 수비 한 명을 젖히고 페널티지역 모서리에서 강한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를 빗나갔다.

전반 30분께는 스티브 시드웰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또 한 차례 슛을 날렸으나 이번엔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리타가 잦은 실수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한 반면 설기현은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볼을 컨트롤하면서 득점 기회를 찾아 나갔다.

결국 설기현은 전반 40분 상대 미드필더 데릭 맥이네스의 백패스를 가로채 침착하게 골키퍼까지 따돌리고 왼발슛으로 네트를 갈랐다.

설기현은 후반 시작하면서 공격수 쉐인 롱과 교체됐고, 이후 레딩은 이렇다할 공격을 선보이지 못한 채 결국 1-0으로 경기를 끝냈다.

설기현은 29일 오후 11시 잉글랜드 리그2 스윈던(4부 리그)과 원정 평가전에서 연속골에 도전한다.

FC 서울 6년만에 우승

광주 상무, 부산 꺾고 중위권 도약 발판

Hauzen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FC 서울이 2000년 정규리그 우승 이후 6년 만에 프로축구 정상에 올랐다.

광주 상무는 홈에서 부산을 꺾고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전남 드래곤즈는 약체 대전에 힘없이 무너졌다.

서울은 26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원정경기로 열린 삼성 하우젠컵 2006 12차전 수원 삼성과 원정경기에서 후반 26분 우루과이 출신 공격수 올리베라에게 첫 골을 잃었으나 후반 39분 천제훈의 천금같은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거뒀다.

전날까지 두 경기를 남겨 놓고도 2위 제주 유나이티드(6승2무3패·승점 20)에 승점 6을 앞서 선두를 달린 서울은 승점 1을 추가하며 8승3무1패(승점 27)가 돼 29일 전남 드래곤즈와 마지막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서울의 우승은 2004년 연고지를 옮긴 이후 처음이며, 안양 LG시절이던 2000년 삼성 디지털 K-리그에 이어 6년만이다. 서울은 상금 1억 원의 수입도 챙기게 됐다.

또 광주 상무는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전반 10분 터진 박혁순의 선제골을 잘 지켜 부산을 1-0으로 눌렀고 전남은 대전 정성훈에게 2골을 내리 헌납하며 0-2로 패해 8위로 내려앉았다.

이밖에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구 FC는 헛심 공방 끝에 0-0으로 비겼고 울산 현대는 포항전서 2-0으로 승리했다.

성남 일화는 전북 현대전서 1-0 승리를 거두며 6승3무3패(승점 21)가 돼 2위에 올라섰고, 실낱같은 역전 우승 희망을 이어오던 2위 제주는 경남FC와 원정경기서 0-2로 패해 4위로 내려 앉았다.

한편 광주 상무는 오는 29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서 경남FC를 상대로 2006 하우젠컵대회 최종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삼성 하우젠컵 2006 중간순위 (27일 현재)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서울	27	8	3	1	19	9	10
2	성남	21	6	3	3	14	10	4
3	울산	20	6	2	4	15	10	5
4	제주	20	6	2	4	12	10	2
5	경남	19	6	1	5	15	14	1
6	대전	18	4	6	2	11	7	4
7	전북	17	5	2	5	13	13	0
8	전남	17	5	2	5	12	12	0
9	포항	16	5	1	6	14	17	-3
10	부산	14	4	2	6	12	13	-1
11	광주	14	4	2	6	9	13	-4
12	대구	12	2	6	4	13	19	-6
13	수원	9	1	6	5	7	13	-6
14	인천	7	1	4	7	9	15	-6

김미현 "3승이 보여요"

김미현이 27일 프랑스 에비앙르뱅의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에비앙마스터스 1라운드 2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LPGA 에비앙마스터스1R 6언더 선두

박세리 2타 뒤진 공동 5위 · 위성미 8위

evian masters

'슈퍼 땅콩' 김미현(29·KTF)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김미현은 27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르뱅의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파72·6천26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에비앙마스터스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샤이니 와(호주) 등과 함께 공동선두에 올랐다.

지난 17일 시즌 두번째 우승컵을 거머쥐며 LPGA 투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김미현은 이로써 2개 대회 연속 우승과 시즌 3승에 푸른 신호등을 켰다.

특히 김미현은 그린 뿐 아니라 페어웨이마저 굴곡이 심하고 까다로운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에서 버디를 9개나 쓸어담아 샷 감각이 절정에 올라 있음을 과시했다.

드라이브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난 것이 단 2차례에 불과했고 아이언샷이 그린을 놓친 것도 4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퍼팅도 24차례 퍼트로 18홀을 마무리지을만큼 완벽했다.

부활에 성공한 박세리(29·CJ)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때린 박세리는 김미현 등 공동선두 그룹에 2타 뒤진 공동5위에 자리를 잡아 유력한 우승 후보로 등장했다.

박세리는 드라이브샷이 단 1차례 페어웨이를 놓쳤고 무려 16차례나 버디 기회를 맞는 등 김미현보다 오히려 샷 감각은 더 좋았지만 버디 퍼트가 번번이 홀을 외면하는 불운 탓에 순위를 더 끌어 올리지 못했다.

작년에 이 대회 준우승을 차지해 기대를 모았던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도 3언더파 69타로 공동8위에 나섰다.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미국 언론의 '압력'을 받고 있는 위성미는 중반까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 신경질까지 내기도 했지만 박세리처럼 18번홀에서 8m짜리 이글퍼팅 한방으로 '톱10'에 진입했다.

공동 5위 박세리.

공동 8위 위성미.

안시현(22)이 2언더파 70타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장정(26·기업은행), 김초롱(22)이 1언더파 71타로 체면치레를 했다.

한편 상금랭킹 1위 오초아가 공동선두에 오른 가운데 카리 웹(호주)은 5언더파 67타로 4위로 첫날을 마쳤고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도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8위에 오르는 등 상위권에 강호들이 대거 포진, 치열한 우승 각축전을 예고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특별레슨 받았다"

김미현 인터뷰서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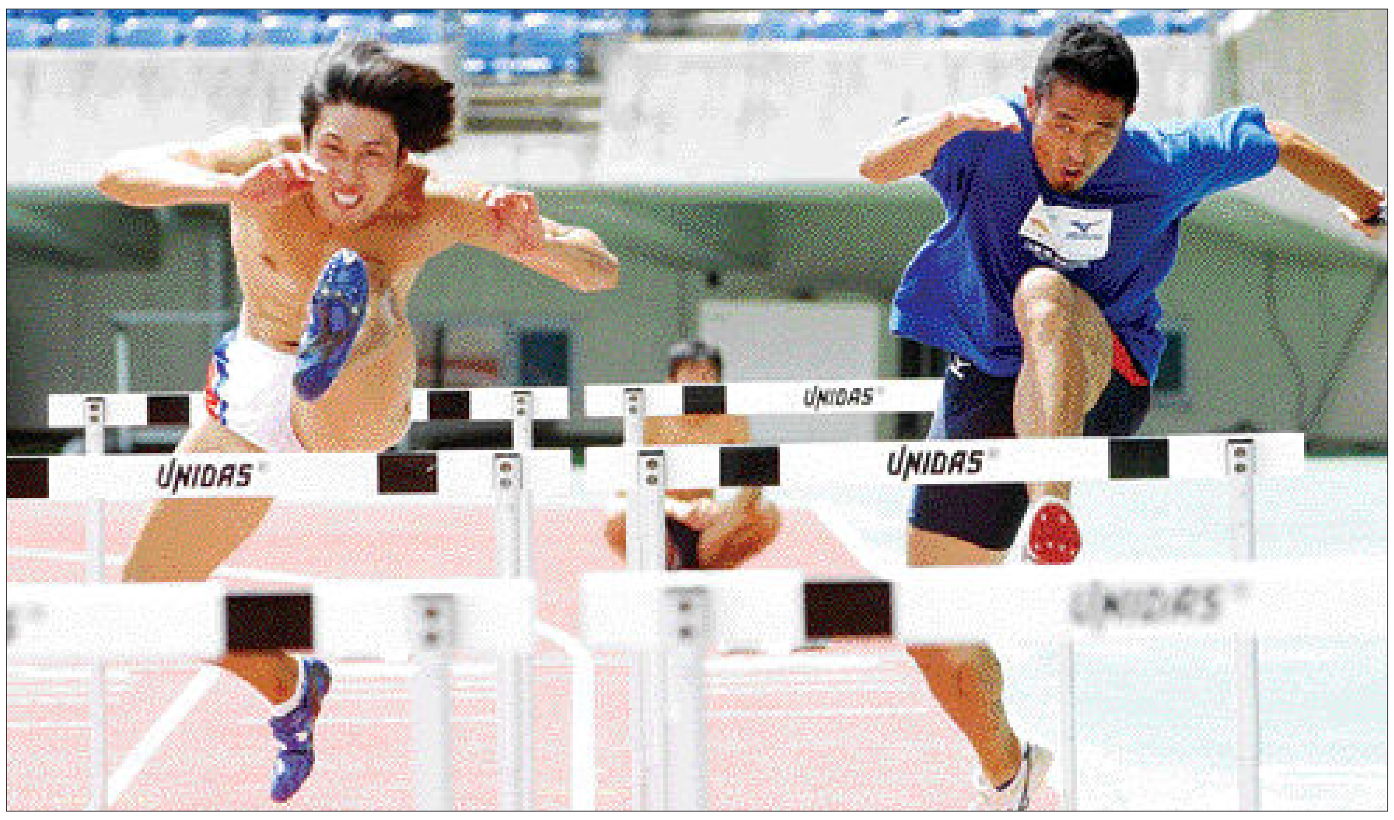
에비앙마스터스 1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뽑아내며 공동선두에 오른 김미현이 대회를 앞두고 '특별 레슨'을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미현은 1라운드를 마친 뒤 가진 공식 인터뷰에서 "지난 주 투어를 쉬는 동안 코치에게 특별 레슨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우승한 뒤 김미현은 에비앙마스터스에 출전하기 전까지 8일간 휴가를 얻었지만 휴식보다는 '특훈'을 감행한 것이다.

훈련은 지난 4월 새로 영입한 코치를 통해 고친 스윙을 보다 완벽하게 다듬는데 주안점을 뒀다.

김미현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우승을 포함해 부쩍 성적이 좋아진 것은 동계훈련동안 단내나는 체력훈련을 치러 전보다 비거리가 늘어난데다 4월부터 작업한 스윙 개조가 효과를 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



누가 빠르나… 박태경(왼쪽)과 다니카와 교수가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합동훈련에서 허들을 힘차게 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10m 허들 박태경-다니카와 광주서 '각축'

일본 쯔쿠바 대학 육상부 전지훈련

부산아시안게임 銀·銅… 선의의 경쟁

27일 오전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

아시아 남자 110m 허들 최강자인 박태경(광주시청)과 일본인 다니카와(37)교수가 110m허들에서 숨가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110m 남자 허들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다니카와 교수와 동메달을 획득한 박태경이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경쟁을 벌이게 된데는 일본 쯔쿠바 대학 육상부가 지난 26일부터 일주일 간 광주에 전지훈련을 왔기 때문.

지난해 11월 박태경(26·광주시청)과 이광필(25·광주시청)이 육상 허들경기 세계적 권위자인 미야시타 켄 교수(59·육상경기부 부부장)가 있는 쯔쿠바대학으로 전지훈련을 간 인연으로 쯔쿠바대학 육상부 44명이 광주에 훈련캠프를 차리게 됐다.

이들 선수들은 광주시청· 조선대·광주체고 육상선수들과 함께 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 육상트랙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들은 오전 9시~12시 30분까지 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오후 3시30분~6시까지 무등경기장 등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고경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한국육상의 대들보인 박태경선수의 훈련성과를 위해 특별지원금을 배려 하는 등 이번 전지훈련을 독려하고 있다.

쯔쿠바 대학은 동경에서 50㎞ 정도 떨어진 이바라키현 쯔쿠바시에 위치한 130년의 역사를 지닌 육상명문대학으로 이번 전지훈련단에도 다음달 북경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전 일본대표로 출정할 선수가 3명이 끼어 있다. 시나타 (3년)선수는 100m를 10초33에 달리는 전 일본 단거리 차세대 주자고, 이시즈카(1년)와 이야하라(여·1년)는 200m와 여자 400m허들대표선수다. 또 박태경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니카와 교수는 교수·코치·선수등 1인 3역을 소화하고 있는 아시아 허들부문의 최강자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내년에 광주시청 육상팀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육상발전을 위한 상호교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쯔쿠바대학 육상부는 오는 28일 조선대캠퍼스 투어와 5·18국립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